

이 사람 - 교사의 꿈 이룬 전주시민축구단 오태환

# “임용시험 합격으로 축구 계속 할 수 있어 기뻐”

전주시민축구단 오태환 선수가 현직 축구선수로 활동하면서 공립 중등학교 임용 시험에 합격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오태환 선수는 지난 2017년 전주시민축구단에 입단한 뒤 총 74경기에 출전해 32골을 기록하는 등 축구선수로서도 뛰어난 실력자다. 하지만 오 선수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어릴 적 꿈이었던 선생님이 되기 위해 학업을 이어가, 최근 전북 공립 중등학교 임용 시험에 최종 합격했다. 이에 축구선수와 선생님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오태환 선수를 만나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어 봤다.



시절을 준비하는 친구들 보다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저를 지금까지 믿고 지원을 아끼지 않은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또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신 감독님과 구단 관계자, 전주시청 스마트시티과를 비롯해 많은 분들에게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임용시험 준비를 하게 된 동기는?**  
축구선수 이후의 삶을 생각하다보니 대학원에 진학해 교원자격증을 얻게 되면서 어렸을 적 꿈인 선생님이 되기 위해 임용시험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특히 제가 K3리그 팀에 입단할 때만 해도 환경이 좋지 않았습니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고민이 더욱 커졌습니다.

**▲임용시험 공부 어떻게 했나요?**  
운동선수로 체력은 자신 있었습니다. 밤늦게까지 공부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원으로 행정업무 보조를 하면서 남는 시간을 활용해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제가 전주시민축구단 입단 당시 임용시험을 준비해 합격한 조성문(2019학년도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 선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강경상교 체육교사로 근무하는 선배에게 많은 조언을 듣고 저만의 공부법을 만들었습니다.

**▲공부할 때 힘들지 않았나요?**  
초등학교 때부터 축구를 했기 때문에 임용

“운동선수 양성에 힘쓰는 교사가 되는 것이 꿈 선생님이로 구단에서 계속 선수생활 이어가고파”

우리팀은 초·중·고 팀이 있어 저와 같은 선수들이 많이 나오게 하고 싶습니다. 또 해외처럼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축구 선수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로 전주시민축구단에서 계속 선수 생활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나에게 전주시민축구단은?**  
친정팀입니다. 전주시민축구단에 입단하면서 나의 미래에 대해 생각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우리 팀 감독님과 지도자를 비롯해 구단 관계자에게 감사드립니다. 제가 공부에 열중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우리 팀도 재정상황이 좋지 않지만 선수들이 미래에 대해 고민하면 대학 진학부터 대학원, 지도자, 심판 등 정보를 제공해주면서 같이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줍니다. 선수 본인이 노력하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팀이 전주시민축구단입니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리나라 체육 영재들이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기는 힘들겠지만 공부하는 운동선수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나마 요즘 공부하는 운동선수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 좋습니다. 체육 영재들도 노력한다면 저보다 더 좋은 미래를 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배들의 성장과 성공을 위해 작은 역할이라도 하는 선배가 되겠습니다. /정은성 기자



## 해양레저스포츠 교육 프로그램 지원 확대

도, 웰빙·힐링욕구 증대 따른 관광활동 수요 지속 증가 따라 카누·요트 등 체험교실 무료로

전북도가 올해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해 운영한다. 도는 수상레저 스포츠의 저변 확대와 웰빙 및 힐링 욕구 증대 등에 따른 관광 활동 수요가 지속적 증가함에 따라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해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도내 2개소에서 운영했던 교육 프로그램을 올해 4개소로 확대하고, 지원액도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한 1억4천6백만 원가량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군산(한국해양소년단 전북연맹훈련장)과 김제(김제시 능력재주지), 부안(부안 요트 마리나), 순창 등 4개 시·군에서 카누와 카약, 요트 등 다채로운 해양레저스포츠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4월부터 11월까지 무료로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은 코로나19에 대비해 체험교실 방역 총괄책임자 지정, 사전예약제, 프로그램당 인원수 제한, 체험 장비 및 다중이용시설 방역 등의 대책을 세워 방역관리를 철저히 준수하며,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체험자 수상레저 종합보험 및 운영인력 상해보험 가입, 안전교육 실시, 구명조끼 및 안전헬멧 착용, 수상안전요원 배치, 구조 장비 및 비상약품 비치 등의 안전대책을 세워 안전관리 또한, 철저히 할 예정이다. 운동용 도 새만금해양수산공장은 “누구나 손쉽게 즐길 수 있는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며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 및 저변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노박 조코비치(1위·세르비아)가 16일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호주오픈 테니스 대회 남자 단식 8강전에서 알렉산더 조코비치(7위·독일)를 물리치고 기뻐하고 있다. 조코비치는 조코비치에 세트스코어 3-1(6-7(6-8) 6-2 6-4 7-6(8-6)) 역전승을 거두고 4강에 올라 이슬람 카라체프(114위·러시아)와 결승행을 다룬다.

## ‘세계 최강’ 조코비치, 호주오픈 테니스 4강 안착

남자단식 8강전서 알렉산더 조코비치를 3-1로 꺾어 이슬람 카라체프와 결승 문턱에서 만나 '결전'

남자 테니스 세계랭킹 1위 노박 조코비치가 호주오픈 테니스대회 4강에 안착했다. 조코비치는 16일(현지시간)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대회 남자단식 8강전에서 알렉산더 조코비치(독일)를 3-1(6-7(6-8) 6-2 6-4 7-6(8-6))로 꺾었다. 통산 9번째이자 3년 연속 호주오픈 패권을 노리는 조코비치는 세계랭킹 7위 조코비치를 맞아 먼저 첫 세트를 내줬지만 내리 세 세트를 따내는 저력을 발휘하며 준결승전에 성공했다. 한때 경기가 잘 풀리지 않자 라켓을 부수기

## “전명규, 故노진규 암투병에도 무리하게 훈련”

인권위 판단... 유족 “부상에도 대회 출전 강요했다”  
‘무리한 대회 출전’ 등 인정... “선수 보호해야”

전명규(58·사진) 전 한국체대 교수가 골육종 진단 이후 사망한 쇼트트랙 선수 고(故) 노진규에게 올림픽 성적을 위해 과도한 훈련을 강요하고 건강 보호를 소홀히 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던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다. 17일 인권위 결정문에 따르면 인권위는 노씨의 유족이 제기한 진정에 대해 지난해 11월말 노씨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못한 채 과도한 훈련이나 무리한 대회 출전을 지속한 것으로 보인다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에게 “전문 운동선수의 부상 예방·재활·복귀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노씨 유족은 “전 전 교수 등이 여가 상태가 좋지 않았던 노씨의 부상 정도나 대회 출전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대회 출전을 강요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적절하고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궁극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취지의 진정을 접수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들이 2013~2014년 사이 발생해 대체로 공소시효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시효가 지난 경우에 해당한다”며 진정을 각하했다. 다만 인권위는 “이 사건 진정을 각하하기로



결정했으나, 부상 당한 피해자가 과도한 훈련과 무리한 대회 출전을 지속한 사실이 있다”며 “이 같은 배경에 피진정인들의 영향력 등이 있었다는 정황이 상당한 만큼,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볼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피해자의 일기 및 참고인들 진술을 보면, 피해자는 외부 병원 진료를 받을 때를 제외하고는 훈련 강도가 강한 국가대표 훈련을 모두 소화했다”며 “피해자가 과도한 훈련을 하고 무리하게 대회에 출전하는 것을 피진정인들이 묵인하고 보호 조치를 소홀히 했다

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대한체육회장에게는 ‘국가대표 훈련관리지침’ 등에 선수의 부상 예방·관리·보호에 대한 조항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대한빙상경기연맹 회장에게는 선수 부상의 경우 대회 출전 및 훈련 참여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심의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한국 남자 쇼트트랙의 간판 선수로 활약하던 노씨는 지난 2014년 소치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골육종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던 중 2016년 세상을 떠났다. 노씨는 2010~2011 시즌 국제빙상연맹(ISU) 쇼트트랙 세계선수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하며 이름을 떨쳤다. 당시 그의 나이 19세로, 장차 한국 쇼트트랙을 끌고 갈 대들보로 평가됐다. 2013~2014 시즌 ISU 월드컵 1차 대회에서 왼쪽 어깨 부상을 당한 그는 치료 과정에서 양성준양 판정을 받았지만, 소치올림픽을 위해 수술과 항암치료를 잠시 미루고 올림픽 준비에 전념했다. 노씨 측 유족은 지난 2018년 “전 교수에게 전화해 수술부터 하자고 했지만, 전 교수는 ‘올림픽이 끝나고 해도 늦지 않다’고 말하면서 반대했다”며 건강 보호 소홀 등 의혹을 제기했다. /뉴시스

## 문체부, 유망 스포츠기업 3년간 8억4000만원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과 함께 2021년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8개사를 새롭게 선정했다. 문체부는 2018년부터 국내 스포츠기업 중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대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매출액 기준 등 선정 요건을 다소 완화하고, 코로나19 피해 가점을 부여했다. 신청한 23개 기업을 대상으로 심사해 ▲운동복과 일상복의 경계를 허문 옷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스포츠의류 제조기업인 ㈜몰라 ▲35년 전통의 당구대 및 당구용품 제조기업인 ㈜허리우드 ▲다시점 초실감 기술을 활용한 비디오 감독시스템을 개발한 포디리플

레이코리아(주) 등 8곳이 선정됐다. 해당 기업들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사업 고도화, 해외 판로 개척, 해외 마케팅을 위해 최대 8억4000만원을 지원받는다. 스포츠기업 선도기업 지원은 2018년부터 꾸준히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 해당 연도에 지원한 기업을 기준으로 전체 매출액은 2018년 9.4%, 2019년 6.28%, 2020년은 코로나19 상황에도 선방하면서 0.8% 감소로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전체 수출액은 2018년 7.9%, 2019년 5.43% 증가했으나, 2020년은 8.8% 감소했다. /뉴시스